

한성숙 “‘벤처강국 대책’ 내달 발표… 수출바우처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5 국정감사

한 장관,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강조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2배 확대
“매년 1000명 이상 청년 창업가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오는 11월 말에 발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11월 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도 용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대책이)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연금급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하고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2배 확대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과정에서 법

률, 세무, 경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 플랫폼의

태도를 볼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의 자유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을 제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앱 호출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택시·타็กซี่는 건당 평균 보험료 1070원 가운데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회사는 470원을 챙긴다.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카카오택시·타็กซี่가 맺은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및 부속사항’에 있는 내용(대기업 제휴콜에 대해 유선콜 업체 소속기사가 콜을 수행해 대기업의 보험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보험비의 일부를 유선콜 업체와 공유한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거대 유통업체의 기술탈취 문제도 거론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의 화장품을 예로 들며 “한 쪽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런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전장환경 급변… K-방산, 무인기 등 독자기술 승부수

현대로템 ‘K-3’ 시제 개발 착수
대한항공 정찰용 무인기 감항 인증
한화 내년 터보프롭 엔진 출고 목표

국내 방산기업들이 차세대 무인기와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비행 기술의 고도화로 전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무인 전력화가 방위산업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인기 기술은 단순한 정찰·자폭 임무를 넘어 고고도 장기체공 정찰과 원거리 타격 등 복합 임무 수행 체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장 환경이 정밀화·고도화되면서 엔진과 항전장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성능이 전력 효율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독자 기술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유무인복합 전차 ‘K-3’ 시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LIG넥스원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블록-I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탐재



대한항공이 개발한 전술급 무인기 KUS-9. /뉴스시스

중량 40kg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시스템 ▲다목적 무인헬기(MPUH) 등 다양한 드론 기술을 개발 중이다.

대한항공은 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을 자체 개발해 군 및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국내 최초로 감항 인증을 획득했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해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국내 방산업계가 핵심 부품의 자립화

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무인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항공용 장수명 터보팬 엔진(5500파운드급)을 개발 중이다. 내년 초 시제 1호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완제 엔진이 완성되면 무인전대기, 무인정찰기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화는 차세대 중고도무인기(MUAV) Block II 탑재용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데 내년엔 시제 1호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 시 KT-1 훈련기 등 다양한

유·무인기에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 경험을 토대로 1만파운드급 대형 엔진 개발도 검토 중이다. 팬 크기를 확대해 바이패스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향후 스텔스 무인기 등 대형 무인기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방산업계가 무인기 개발과 무인 전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술 수준은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기업은 여전히 수입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인기 기술은 단기간에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분야”라며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해외 협력을 통한 기술 내재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

온라인 6307억, 오프라인 327억

9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열린 ‘9월 동행축제’에서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634억원 중 온라인 판매전은 6307억원, 오프라인 판매전은 327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485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원이 각각 판매됐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동행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듀티프리페스타 등 기존의 할인 축제를 통합해 대규모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쇼핑·여행·문화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숙면매트 사계절 TV 광고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2종 광고 공개

경동나비엔이 ‘숙면매트 사계절’ TV 광고 및 디지털 광고와 ‘숙면매트 카본’ 디지털 광고를 새롭게 공개했다.

14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새 광고는 ‘기술의 차이가 숙면의 차이’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배우 마동석의 유쾌한 연기로 풀어내며 AI 숙면 솔루션과 정밀한 온도 제어 기술로 숙면을 선사하는 숙면매트의 가치를 전달한다. /김승호 기자

개성공단기업 10곳 중 8곳 “재입주 희망”

중기중앙회 남북경협 관련 실태조사
“중소기업에 새로운 돌파구 될 수 있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10곳 중 8곳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이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기업의 절대 다수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를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실제 설문에는 입주기업 55개사를 포함해 200개사가 응답했다.

우선 ‘남북경협 재개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입주기업의 83.7%가 ‘참여하겠다’고 답해 여전히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주기업은 3.6%에 그쳤다. 다만 비입주기업 중에선 ‘부정적 답변’(아니다)이

50.3%로 ‘긍정적 답변’(그렇다·18.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입주기업의 90.9%, 비입주기업의 28.3%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입주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입주기업 중에선 ‘보통’이라는 평가가 44.5%로 가장 많았다. ‘아니다’(26.9%)는 ‘그렇다’보다 다소 적었다.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 평가’는 전체 응답기업의 36%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는 개성공단 입주사(67.3%)가 비입주사(24.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불리하다’는 입주사(5.5%)와 비입주사(27.6%)의 평가가 엇갈렸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